

‘광주에 빛진 마음’ 담아낸 대나무 인간 ‘따뜻한 손’

최평곤 작가, 미로센터에 설치 대나무·스테인레스 등 10.4m ‘동학혁명 상징 대나무로 작업’

“시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대한 대나무 인간 ‘따뜻한 손’은 최평곤이 민중항쟁의 도시 광주에 헌정하는 작품이다. 그는 동학혁명 당시 죽창으로 쓰였던 대나무를 이용해 거대한 대나무 인간을 만들고 ‘광주에 빛진 마음’을 담아 따뜻한 손을 내민다.(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비평문 중)”

광주 예술의거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미로센터 2층 미로가든에 ‘하늘과 땅을 잇는’ 듯한 조형물이 눈에 띈다. ‘거대한 대나무 사람’ 연작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는 최평곤 작가의 공공미술 작품 ‘따뜻한 손’이다.

최 작가는 대나무를 씨줄과 날줄로 엮갈리게 엮어 사람의 형상을 단순화해 덩어리로 표현했다. 독특한 볼륨감이 특이한 작업물에는 압도적인 크기의 사람 형상과 무게로 개개인의 성찰을 이끈다.



최평곤 작가.

광주 예술의거리 중심에 10.4m 높이의 거대한 설치작품이 설치된 점 또한 주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예술의거리는 일제 강점기 광주읍성 철거 후 식민체계에 따른 공간 재편으로 근대화·상업화가 진행됐고 이후 예술상권이 형성됐다. 또 5·18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중심지다. 평화의 손길을 내미는

거대한 인간군상의 모티브가 된 것.

최평곤 작가는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빛진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모두의 아픈이던 비극의 시대를 이겨내고 현재를 살고 있는 광주 시민에 위로와 전하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따뜻한 손’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최평곤 작가의 대나무 작업은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광주에서 열린 설치미술전부터 시작됐다. 동학의 상징적 매체인 죽창으로부터 민중의 희망과 투쟁의 상징을 포착한다.

대나무는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를 통해 생명은 때에 따라 생성하고 번성하다 소멸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도 한다. 대나무를 통해 영원할 수 없다는 생명의 순리를 작품에 담아냈다.

최평곤 작가는 ‘따뜻한 손’을 제작하기 위해 장소적 스토리를 고민했다. 5·18 역사가 깃든 예술의거리에 있으면서 광주 동구가 옛 건물 등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미로센터가 적격이었다.

형태와 규모를 결정해 드로잉 하고

실제 제작 크기를 고려한 골조 설계를 한 후 모형 제작했다. 작품이 설치될 미로센터 기후 환경을 고려해 비, 바람,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고 프레임 제작했다. 마지막 과정으로 대나무를 프레임에 이어 붙여 작업을 완성했다.

이번 설치작품은 프로젝트형 단기 전시 설치 작품이 아니기에 작품의 영구적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의 철 프레임이 아닌 스테인레스 프레임으로 제작했다. 외부 마감재인 대나무의 교체 시기가 닦을 때, 효율적인 교체 작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미로센터 관계자는 “두 손을 내미는 조형물의 몸짓을 통해 ‘따뜻한 손’에 안기는 기분이 들게 하는 기회를 광주 시민들에 선사하고 싶었다”며 “대나무 인간 ‘따뜻한 손’을 통해 광주의 기억자원이 오롯이 미래 계승될 수 있는 상징적 개체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 동구 미로센터 2층 미로가든에 설치된 최평곤 작 ‘따뜻한 손’. 미로센터 제공



국립나주박물관이 고대 영산강 유역의 문화재 중 하나인 ‘독널’을 활용한 놀이 교구를 제작했다.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국립나주박물관, 영산강 문화재 ‘독널’ 놀이 교구 호응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시범운영

국립나주박물관은 어린이들이 고대 영산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협동형 문화재 놀이 교구 ‘열려라, 독널!’을 개발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물관은 이를 활용해 내년부터 본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놀이 교구는 국립나주박물관을 대표하는 문화재 중 하나인 ‘독널’을 주제로 제작됐다. 독널은 고대 영산강 유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항아리 모양의 흙으로 만든 관이다.

유아들은 놀이 교구 ‘열려라, 독널!’을

활용해 △독널 속 부장품 꾸미기 △입체 독널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독널 속 부장품 꾸미기는 독널 속에 묻힌 주인공을 상상하며 옷과 장신구, 부장품 등을 자유롭게 꾸며볼 수 있는 활동이다.

입체 독널 만들기는 독널 그림이 배경으로 그려진 천을 따라 볼록을 쌓는 등 독널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꾸며보는 활동이다.

국립나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교구에 대해 15개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도 마쳤다. 평가를 토대로 내년부터 이를 활용한 정식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놀이 교구를 활용해 유아들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김넷과, 20일까지 광주 유망 작가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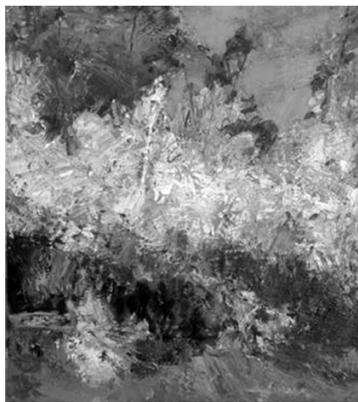
광주 신세계백화점 본관1층

지역 복합문화공간 김넷과가 ㈜오메이커스와 함께 광주 유망 작가전을 오는 20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자리다. 청년작가부터 중진작가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참여 작가는 김수진, 노정석, 박성완, 위수빈, 유봉순, 조근호, 조성민 작가 등 7명이다.

김수진 작가는 서로 다른 시간을 점유한 생명체들과 함께하거나 마주하며 그 기억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한다.

노정석 작가는 정립되지 않은 카오스적 상태에서 자아와 정체성을 찾고 싶은 욕



박성완 작 풀숲. 김넷과 제공

구를 표출한 스테인레스 스틸 시리즈를 선보인다.

박성완 작가는 사진 이미지를 찾고 그에 대한 심상을 떠올리며 화폭을 완성한

다. 위수빈 작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에너지를 색으로 가두어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

유봉순 작가는 정신적인 여백의 공간을 화폭에 펼쳐낸다.

조근호 작가는 그동안 작업해왔던 도시와 자연, 일상과 심상, 가시적인 세상과 사유의 세계를 재해석해 다시 한 덩어리로 통합하는 ‘몽치산수’ 시리즈를 선보인다. 조성민 작가는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뭉쳐져 만들어진 나만의 세계를 표현한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오는 16~17일 박성완 작가 캐리커처 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동구 대의동에 있는 ‘김넷과’는 옛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갤러리,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도선인 기자

괴짜 백남준 예술세계 현재성·플럭서스 정신 세미나

14일 G.MAP 미디어라운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미디어아트 세미나 ‘백남준 예술세계의 현재성과 플럭서스 정신’을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G.MAP 미디어라운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G.MAP의 전시 연계 학술 행사로 각각 지난 1일과 지난달 24일 개최한 ‘백남준 : 사랑은 10,000마일’ 전과 국제미디어파사드전 ‘백남준 : Post-Fluxus Sense’와 관련해 백남준의 예술 세계 및 플럭서스 정신을 주제로 백남준 예술세계의 현재적 가치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아티스트 토크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에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김홍희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장이 참여하며 지정토론자로는 김허경 전남대 교수, 이경은 아트링크 대표, 현시원 시청 각랩 대표가 나선다.

2부는 국제미디어파사드전 선정작가인 노승관, 다발킴(한국), 아리 디커(폴란드), 프라팻 지와랑산(태국)이 참여, 이번 공모전 선정작을 비롯해 작품세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세미나는 백남준을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 ‘미디어아트의 창시자’ 등 미술사 범주의 제한적인 틀에만 국한하지 않

고, 테크놀로지를 매체로 활용한 일체의 예술형식과 현재진행형의 뉴미디어 아트에 끼친 영향 등을 가늠, 그의 예술세계를 과거형이 아닌 현재적 시점에서 재고하는 자리다. 혼합매체를 중심으로 반예술적 전위운동을 펼쳤던 플럭서스 정신을 동시대 예술 방향성과 모색, 현재 뉴미디어 아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한다.

이경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은 “백남준 예술세계를 위시한 세미나를 통해 매체예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늠하는 장이 되기 바란다”면서 “미디어 예술에 내재된 실험정신과 시대성을 재고, 사회문화에 끼치는 예술 영향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